

‘불수능’ 영어·국어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다

만점자 5명...작년比 절반 수준
영어 1등급 절대평가 후 최저
국어·수학 만점자도 대폭 감소
사회 77.3% ‘사탐런’ 변수될 듯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지난달 13일 치러진 수능 채점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전체 만점자는 재학생 4명, 졸업생 1명 등 총 5명으로 지난해 1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영어와 국어 영역은 ‘불수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도가 높아 수험생들의 입시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영역은 영어로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3.11%(1만5천154명)에 그쳤다.
영어가 2018학년도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24학년도(4.71%)를 밑돌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등급 비율은 지난해(6.22%)의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상위권 학생 간 차별력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 표준점수)을 보면 국어 영역도 상당히 까다로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지난해(1

39점)보다 8점이나 올랐다.
지난 9월 모의평가(143점)와 비교하면 4점 높고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받았던 2024학년도(150점)보다는 낮다. 독서의 난도가 높았고 일부 문항에서 어려운 지문이 출제됐다.
국어 만점자는 261명으로 지난해(1천55명)의 4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2025학년도(140점)에 비해 1점 떨어졌다. 그러나 만점자는 780명으로 지난해(1천522명)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구분점수(등급 컷)는 국어가 133점으로 지난해보다 2점 올랐고 수학은 128점으로 3점 내려갔다.
탐구 영역의 경우 1등급 구분점수가 사회탐

구 65-68점, 과학탐구 65-68점, 직업탐구 63-68점이다.
사회탐구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을 보면 세계 지리가 73점으로 가장 높고 정치와법이 67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입시에서는 이른바 ‘사탐런’(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몰리는 현상)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수능 사회·과학탐구영역 지원자 가운데 사회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학생은 77.3%(41만1천259명)로 지난해(62.1%)보다 무려 15.2%포인트(p) 높아졌다.
한편 올해 수능 응시생은 49만3천886명으로 재학생 33만3천102명, 졸업생 등 16만794명이며, 개인별 성적표는 5일 통지된다. /박선욱 기자

金총리 “민주성지 광주, 미래 산업 메카 도약”

서구-국무총리실 주최 K-국정설명회서
도움 약속...“정신적 고향” 애정 표현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광주를 찾아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의 성과와 향후 국정 방향 등을 공유했다. 또 위대한 민주성지 광주가 AI 등 미래 산업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서빛마루 문예회관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지역민들과 만났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광화문을 벗어난 지역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정 설명회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양부남·민형배·조인철·정진욱·전진숙·박군택 국회의원 및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 총리는 GDP 실질 성장을 호전과 코스피 4천 돌파를 언급하며 “5천대까지 가는 것을 기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광주 남구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을 찾아 어르신들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달 26일에도 광주를 방문해 서구 동천동 일대 골목 상점 등을 둘러봤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지난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곤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대원칙과 전략 덕

에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한국이 그래도 그럴싸하게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성공 개최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외교 성과를 소개하며 “힘의 외교에서 원칙과 전략으로 할 말은 하는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국정 설명을 마친 뒤 김 총리는 대학생 시절을 언급하며 “광주는 정신적 고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민주 성지인 광주가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미래 산업의 기관차이자 에너지로 가는 그런 모습을 너무 보고 싶다”며 “광주가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정말 탁월해지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총리는 최근 확정된 정부 예산안 속 광주의 AI 실증 사업 등과 관련해 “앞으로 미래 산업의 메카로서 만들어가는 단단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정부가 현장 속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국정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만큼 지방정부도 주민 참여 기반의 공감 행정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연상 기자

광주·전남 올해도 ‘더운 가을’

9-11월 평균기온 18도 역대 2위
강수일수도 32.8일로 2위 올라

올가을 광주·전남은 덥고 비도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가을철 기후

특성’에 따르면 올해 9-11월 광주·전남의 평균기온은 18도로 역대 가장 더운 가을에 랭크됐던 지난해보다 0.9도가량 낮으며 2위를 기록했다.
9-10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으나, 11월의 경우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평년 수준이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다만 11월부터 서해안 등 일부 지역은 큰 일교차를 보이기도 했는데, 11월19일에는 서해상에

서 바닷물과 대기의 온도 차이로 눈구름대가 유입돼 목포에서 지난해보다 24일 빠르게 첫눈이 관측됐다.
가을철 강수일수 역시 32.8일로 역대 두 번째에 올랐다.
9월은 북서쪽의 차고 건조한 상층 기압골이 자주 남하하면서 강수일수 15.9일(1위)이지만 강수량은 141.7mm로 평년보다 9.8%가량 적었다.
10월 역시 하층에서 저기압이 통과해 강수일수는 10.4일(3위)이었으며 강수량은 142mm로 평

년 대비 11.9% 많은 비가 내렸다.
11월부터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등 기후 변동이 있었다. 강수일수는 6.5일로 평년보다 1.1일 적었고, 강수량은 26.4mm로 평년 52.3mm의 절반 수준이었다.
정현숙 광주지방기상청장은 “날씨 변화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한파·대설 등 겨울철 위험기상에 대비해 신속하게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방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형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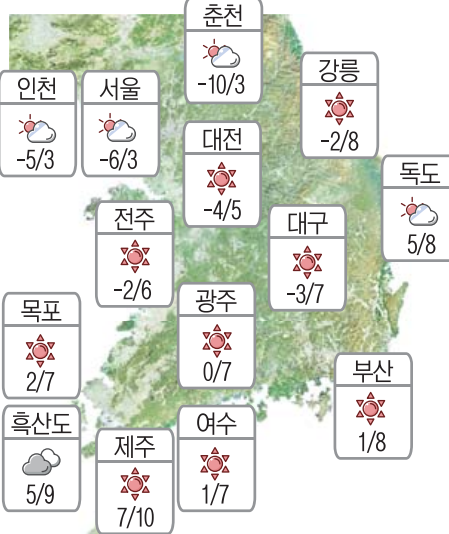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6 해질 17:20 🌙달돋이 17:18 달질 07:43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0/7	장성	맑음	-2/6
목포	맑음	2/7	보성	맑음	-2/5
여수	맑음	1/7	함평	맑음	0/7
나주	맑음	-1/6	순천	맑음	-1/7
완도	맑음	2/9	영광	맑음	0/6
구례	맑음	-2/7	진도	맑음	3/8
강진	맑음	1/8	흑산도	구름많음	5/9
해남	맑음	1/8	고흥	맑음	0/9
광양	맑음	0/9	담양	맑음	-2/6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1.5-3.0	1.0-2.0
	면바다(북)	1.5-3.5	1.5-2.5
남부	면바다(남)	1.5-3.0	1.5-2.5
	앞바다	1.0-2.0	0.5-1.5
남해	면바다(동)	1.5-2.5	1.5-2.5
	면바다(서)	1.5-2.5	1.0-2.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1:33	07:00	여수	09:14	02:32	녹동	09:56	03:30
	14:27	19:47		21:17	15:18		21:53	16:32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40

세 차 40

감기 조심해요

차 내부정돈이 좋아요

빨래 40

운동 40

실내건조 좋아요

실내운동 즐겨요

●주간 날씨

6일(토)	7일(일)	8일(월)
☁(-1/12)	☁(4/15)	☀(5/9)
구름조금	구름조금	맑음
9일(화)	10일(수)	11일(목)
☀(0/9)	☀(1/11)	☀(3/13)
맑음	맑음	맑음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안전한 광주전남

이제, 우리마을 교통안전은

차만손

으로

도로를 건널때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횡단의사 표시해요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왜, 차만손 운동이 필요한가?

- 고령보행자는 접근차량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건너갈 때는 차만손 해요.
- 운전자는 느린 보행의 고령자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멈추라고 차만손 해요.
- 우리나라는 고령자 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 차만손 해요.
- 달리는 차를 향해 손을 들면 대부분이 멈춰요.
그래서, 느린 보행의 고령자는 차만손 해요.

CMYK